

금호타이어 매각 '상표권 분쟁' 새 국면

채권단 "20년 사용권 달라"

채무 만기 연장 카드 제시

박삼구 회장 "조건 맞으면..."

지역민 "새정부 역할 기대"

노조 매각 작업 중단 재촉구

중국 더블스타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채권단이 '채권만기 연장' 카드를 통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항토기업의 중국 매각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다음달 돌아오는 금호타이어의 1조3000억원 규모 채권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채권단 내부에선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불발되면 박 회장에 위임한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지난 26일 매각 주관사인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주주협의회를 갖고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29일 만기도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만기일을 3개월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내달 초 채권만기 연장 안을 주주협의회에 공식 부의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은행(1조2003억원), 우리은행(6154억원), 하나은행(1793억원), 농협은행(1106억원) 등에 총 2조원 이상의 채무가 있다. 이 중 6월 1조3000억원의 채무 만기가 돌아온다.

이와같이 산업은행이 채권단이 채무만기 연장 카드를 내세워 상표권 사용 허락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오는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매각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선결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금호 상표권이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금호 브랜드를 20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

■ 금호타이어 매각 선결 조건들

(자료:업계)

금호 브랜드 상표권	• 더블스타 "20년 간 금호 브랜드 사용 요구. 브랜드 사용료율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약 2000억원 브랜드 사용료 임차가에 포함할 것" •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유권자와 협의 없이 결정된 브랜드 사용료 등은 비상식적 계약"
채무 재조정	• 채권단 여신 2조원 중 6월 만기인 1조5864억원 만기 5년간 연장 • 더블스타 "채무 상환을 기존 조건 그대로 5년간 유예하고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달라"
정부 인허가	• 국내 전투기 및 군용 트럭용 타이어 공급 업체. 방산 부문 인수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필요

다. 하지만 정작 금호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과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박 회장 측은 20년 사용은 불가하고 5년 사용은 논의해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맺은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산업은행이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채권단이 다시 공세로 나서자 박 회장 측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박 회장은 26일 채권단의 논의 결과를 확인하고 "법정관

리도 갈 수 있는 회사(금호타이어)를 9500억원에 매각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상표권 사용을 5년간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년을 허락해달라고는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냥 협조해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협조하라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업계와 지역에서는 채권단과 박 회장 측의 이 같은 신경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금호

타이어 매각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우려, 채권단 권리를 남용해 브랜드 사용권 문제를 풀려는 모습"이라며 "금호타이어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워크아웃 작업이 결국 채권단의 경솔한 매각 절차로 인해 본질과는 다른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민들도 고용 안정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걱정하며 새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이 아닌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달에 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산업은행 본관 앞에서 진행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해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산업은행과 더블스타 간 본계약 계약서 공개와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전자가 지난 25일 일본 도쿄 중심가인 오모테산도의 뱅크 갤러리에 개관한 갤럭시S8 시리즈 체험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S8과 갤럭시S8플러스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 S8 출시 한달만에 국내 개통량 100만대 돌파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8 시리즈가 국내에서 출시한 지 약 한 달 만에 100만대 넘게 팔렸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초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 갤럭시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판매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21일 출시한 갤럭시S8 시리즈는 37일만인 지난 27일 국내 개통량 100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S6는 출시

후 75일 만에, 갤럭시S7은 74일 만에 각각 국내 개통량 100만대를 넘었다"며 "갤럭시S8 판매 속도가 전작보다 2배 가까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8 시리즈는 세계 시장에서도 판매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달 초 세계 시장에서 개통량이 500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에 가장 먼저 출시했다. 일주일 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판매를 시

작했고 5월 말인 현재 전 세계 120여개국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다음달 초 일본 내 1·2위 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와 KDDI를 통해 갤럭시S8 시리즈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일본 현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TV 서비스인 원세그(1 Seg)와 풀세그(Full Seg), 간편결제 서비스 펠리카(Felica)를 탑재하고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김대성기자bigkim@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 성료 보해양조 홍보·도우미 역할 '톡톡'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의 일 새주가 지난 26일~28일까지 순천시 중앙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2017 순천 푸드 아트 페스티벌'을 적극 지원했다. 올해 2화제를 맞는 이번 행사는 '맛에 미(美)치고, 멋에 미(美)치다'를 주제로 전남 지역의 다양한 음식과 예술을 직접 감상하고 체험하는 순천시의 대표 융복합형 축제다.

남도 소주 일새주는 남도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소주로 각인되며 지역의 문화, 경제 활성화와 남도음식 브랜드화에 힘을 실어주며 지역소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남지역 음식이 주목 받는 분위기에 힘입어 이번 방문객 수가 지난해 20여만명보다 대폭 늘 것으로 예상하여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일새주 후면라벨을 300만병 생산하여 지역민들에게 축제를 알렸다. 또한 브랜드 부스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위해 500여개의 테이블, 파라솔 설치와 p상자 대여등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역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일새주와 함께 맛에 미치는 행사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주)의 일새주는 호남 제일의 약수인 장성군 '영천(錦泉)'의 지하 253m 천연 알밤수의 물에 단풍나무 수액까지 첨가되면서 술 맛이 부드러워져 젊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포브스 글로벌 순위' 전력 부문 2위

종합 순위 138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5일 발표된 'Forbes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전력유틸리티 부문 2위, 종합 138위를 달성하였다. 지난 2012년 종합 580위, 글로벌 전력회사 30위를 기록했던 한전은 작년 유틸리티분야 1위로 도약한 데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최상위 전력회사로 우뚝 서며 대한민국 에너지기업의 저력을 입증하게 됐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로 아시아 전력·가스 유틸리티 중 1등 전력회사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아시아 전력회사 3년 연속 1위를 달성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빛냈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은 삼성(15위), 현대차(104위)에 이어 국내 기업 중 3위를

기록하였으며, 공기업 중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한전이 유일하다. 이와 같은 성과는 환율 및 유가의 급변,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전력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설비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재무적 안정성을 달성한 결과다. 또한 유가 하락과 높은 전기요금 수준에도 유틸리티 부문 10위권 안에 진입하지 못한 여타 아시아 전력회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전은 월드뱅크 선정 기업환경평가에서 전기공급분야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9월 발표된 Platts Top 250 랭킹에서 글로벌 에너지기업중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각종 글로벌 평가에서 최고의 위상을 확인해 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H 정부 일자리 정책 맞춰 '건설품질명장제' 도입

한국도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기능인 등급제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에 맞춰 '건설품질명장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품질명장은 20~3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숙련 기능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하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명장이 가진 작업기술과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고 기능을 전수·교육하게 된다.

오는 7월 중 고숙련 기능인력을 보유한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용역계약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국내외 이슈 정리한- '연합연감 2017년판' 출간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17년판'이 출간됐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5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지난 한 해 국내외 분야별 주요 사건과 사고를 총 정리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권두에 현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다룬 '2017 대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특집편을 실었습니다.

초점으로는 하반기 온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를 불러온 4·13총선, 고질적인 절대 문화를 바꾼 김영란법 시행, 시드배치 논란과 중국의 반발 등을 선정해 상세하게 조명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를 일지로 요약·정리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각국현황 등의 분야를 사진, 그래픽, 표 등을 곁들여 편집했습니다. 또 통계, 일람,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재한국회부터 지난해 구성된 20대 국회까지를 망라한 역대 국회 의원 명단 등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어 게재했습니다.

북한 편에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한 집권 5년차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뉴스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시·도 지리에는 행정구역 등을 지도와 함께 수록해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6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및 북한 주요 인물들의 주요 학력과 경력 등을 소개해 참고자료로서 가치를 높였습니다.

■ 4×6배판, 총 1,416쪽, 양장본
■ 가격 : 18만원

연합연감 2017
YONHAPNEWS AGENCY

www.yonhapnews.co.kr

구입 문의 서울(02)398-3593~4 경기(031)239-2122 강원(031)589-7788 인천(032)441-2007 대전 충청(042)521-9705 광주(062)264-5777 전남(053)281-0010 부산 울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